

정치하는 사람들이 측근의 말만 듣지 말고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나타낸 교훈적 말이다.

▶ 의붓아버지 떡 치는 데는 가도 친 아버지 도끼질하는 데는 안 간다
자신을 미워하는 의붓아버지가 떡을 치는데 가면 떡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친 아버지가 도끼질 하는 데에 가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위험한 장소에 가면 해를 입으니 조심하라는 말이다.

곤충이야기-송장벌레

벌레이름이 ‘송장’이라니 “무섭게 생겼거나 무시무시한 성질을 지닌 놈인가 보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 모습을 대하였을 때는 이렇게 멋진 곤충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모양새나 색깔이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이였다.

송장벌레의 종류는 검정신사복 같은 말끔한 외투를 두른 넓적송장벌레, 검정송장벌레, 큰 수중다리송장벌레와 빨간 마후라를 가슴에 두른 우단송장벌레와 등근대모송장벌레 그리고 화려한 모습을 갖춘 등황색 바탕에 점이 네 개인 너점박이송장벌레, 노란색바탕에 점이 네 개 박힌 네눈박이송장벌레, 흑색과 주황색의 물결무늬가 조화를 이룬 무늬송장벌레 등이 있다.

송장벌레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동물의 시체에 잘 모여들기



송장벌레의 모습

때문이다. 왜 흥측하게도 시체에 모여들까? 그것은 그들의 주식이 동물의 죽은 시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알을 낳고 부화시키려면 다른 동물의 시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송장벌레는 죽은 동물의 시체 위에 알을 낳아 종족을 번식시킨다.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다른 동물의 시체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 동물의 시체가 빨리 부패되지 않도록

흙이나 낙엽 등으로 덮어두기도 한다.

송장벌레는 자연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곤충이다. 주검으로 넘쳐날 지구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죽은 사체(死體)를 먹는 곤충으로는 수시렁이, 반날개, 검정파리, 흰개미, 갑옷벌레, 톱토기 등이 있는데 송장벌레는 그들과 함께 자연계를 정화시키는 일에 제몫을 제대로 하고 있다.

송장벌레의 또 다른 중요성은 법의학에도 이용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명시한 사체를 먹는 벌레들이 동물의 시체의 부패 정도에 따라 모여드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는 송장벌레를 일컬어 자연공화국의 위생장관이라고 불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에 송장벌레는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환경교사, 환경지킴이의 직무를 잘 해나감으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소중한 곤충이다.

송장벌레의 다른 별명은 '숲속의 장의사'이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잘 마무리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장례는 외관상으로 꾸미기를 좋아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묘역을 조성하지만 송장벌레가 치르는 장례는 사체를 말끔하게 처리해줌으로 다음 세대가 그 영역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수준 높은 장례인 것이다.

최근 영국 맨체스터대학 연구진에서는 송장벌레가 사체에 알을 낳을 때 사체에 향문샘에서 분비되는 항균물질을 바른다고 발표하였다. 그 물질은 사람의 눈물이나 포유류의 젖의 성분에도 있는 효소로 사체의 세균 감염을 막고 신선함을 유지해 유충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분비물이 없는 곳에서 자란 유충은 생존확률이 40%라고 한다. 과학적 연구 결과로 신기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미의 보호본능을 한낱 미물인 곤충에게서도 봄으로 조물주의 섬세한 창조의 섭리에 진한 감동을 받는다.

글을 쓰고 있는 방에 곤충액자가 걸려있는데 그 액자 가운데 검정송장벌레 표본이 있다. 송장벌레 중 가장 큰 것으로 가로등 불빛에 대어들다 땅에 떨어져 누군가의 발에 밟혀죽은 것을 표본한 것이다. 당시 놀라울 정도로 그 모습이 다른 곤충들에 비해 세차고 당당함에 잠깐 멍한 채로 바라보았던 놈이다. 그놈의 장례는 액자 속의 교육용으로 치러졌지만 자연의 질서를 제구실을 다하며 지켜나가는 송장벌레의 위대한 상징으로 삼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지킴이로 소개할 것이다. 農